



트로이카, 2020년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129% 전망

오병국 연구원

- 그리스의 재정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트로이카(유럽연합, 유럽중앙은행, 국제통화기금)는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에 관한 전망치를 발표함.
 -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국민총생산(GDP)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29%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.
 - 참고로 현재 그리스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약 160%임.
- 이번 전망치는 그리스의 채무상환능력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120% 보다 높은 수준임.
 -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로이카는 오는 2020년까지 그리스가 정부지출 감축 등 긴축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음.
- 한편, 전망보고서는 그리스채권의 재조정을 통해 정부부채비율이 129%에서 120%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, 상황별로 부채비율의 감소 정도를 밝힘.
 - 첫째, 그리스에게 빌려준 유로존 대출채권의 금리를 낮추면, 정부부채비율이 1.5%p 하락할 것임.
 - 둘째, 유럽중앙은행이 투자한 그리스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게 되면, 정부부채비율이 3.5%p 낮아질 것임.
 - 셋째, 유럽중앙은행이 보유한 그리스채권의 투자이익을 완전포기하면, 정부부채비율이 5.5%p 줄어들 것임.

(로이터 통신, 2/21)